

HARVEST TIMES

2026년 2월 1일 제 17권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홍순아 박사

기독교 상담 심리대학원 원장

HARVEST TIMES

CONTENTS

- 03 품성계발 신학
- 05 하베스트 대학교 기독 상담 심리 대학원 원장 **홍순아 박사**
- 13 하베스트 대학교 캠퍼스 - 태안, 제주, 동경, 나갈랜드, 치앙마이
- 27. 하베스트 학위 운영과정 규정
- 39 코칭리더십
- 42 무슬림의 움마와 크리스천의 에클레시아
- 40 하나님이 되고
- 54 열망물 소개
- 56 선교사 연금
- 59 하나님의 아들
- 62. [독후감]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고
- 67 실크로드를 따라서

품성 계발의 신학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성화의 관계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대표
하베스트 대학교 총장
이성상 태국 선교사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성화(sanctification)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존재의 기원과 목적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며, 성화는 타락 이후 그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설명하는 구원론적 범주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증언한다(창 1:26-27).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외적 유사성이나 특정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총체성을 의미한다.¹⁾ 이는 인간이 이성, 감정, 의지를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았음을 포함한다.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나, 왜곡되고 훼손된 상

1)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1986), 12-25.

태로 남아 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지니지만, 그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로 인해 인간의 품성 역시 하나님을 닮은 방향에서 벗어나 자기 중심성과 관계 파괴로 기울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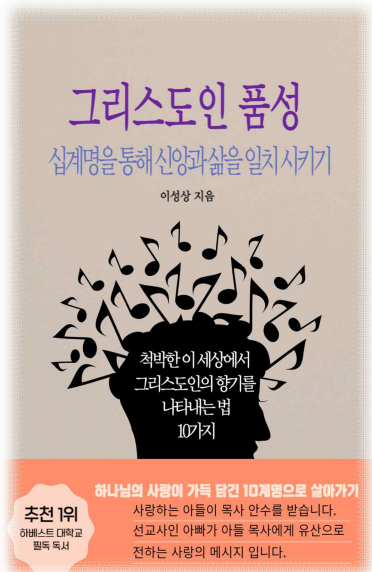
이 지점에서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신약성경은 구원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두며(롬 8:29), 신자를 “새 사람”으로 묘사한다(엡 4:24). 이는 성화가 단순한 윤리적 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재형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²⁾

따라서 품성은 성화의 부수적 결과가 아니라, 성화가 삶 속에서 가시화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사랑, 인내,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이 신자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다. 이 관점에서 선교사 품성은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론적 변화가 선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증거로 이해된다.

요컨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창조론적 개념이며, 성화는 그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가는 구원론적 과정이다.



그리고 품성은 이 회복 과정이 선교사의 삶과 관계, 사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는 다음 장에서 다룰 이성상 선교사의 품성계발 신학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2) G. C. Berkouwer, *Ma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s: Eerdmans, 1962), 104-121.

부르심에 응답하며, 마음을 세우다

GEM Mission 대표
기독교상담심리학 대학원 원장
홍순아 박사



I. 사역의 현장에서 삶으로 배운 부르심

1995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중국으로 파송 되었습니다. 처음의 구령의 열정과 의지와는 달리 낯선 문화와 언어,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저의 삶은 ‘선교 이전에 존재 자체로 서는 훈련’이었습니다. 복음의 결실이 주는 기쁨이 컸지만, 사역의 열매 이면에는 관계의 긴장과 소진이 함께 엮인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안식년 없이 몰입해서 사역하던 중, 갑작스런 저의 갑상선 암 수술로 인해 사역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다시 묻게 되었을 때, 주님은 제게 선교사의 마음을 돌보는 ‘**멤버 케어자**’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부르심을 위해 그동안 저는 Torch Trinity와 Westminster 대학원에서 기독교상담전문가로서 이론과 임상훈련을 받으며 상담의 전문성을 체계화 시켰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서초가정법원 면접교섭위원, 중앙일보 심리자문위원 그리고 MBC 「꾸러기식사교실」 아동심리전문가,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연계 심리상담전문가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의 영역을 확장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방향성과 초점은 주님의 부르심 위에 푯대로 세워지고, 저의 전문성 또한 주님 나라의

회복사역을 위한 준비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일의 일환으로 현재 **GEM Mission 대표**로서 선교사와 사역자를 위한 멤버케어와 심리적 지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I. 선교사의 마음을 돌보다 - G.E.M 사역의 시작

“G.E.M 은 선교사를 ‘사역자’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 가족 상담을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된 현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사역의 이름으로 자신의 고통을 뒤로 미루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괜찮습니다”라는 말 뒤에 우울과 불안, 관계의 갈등과 탈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역시 누군가의 아내이고 남편이며, 부모이자 자녀라는 사실은 종종 사역의 명분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괜찮다’는 말은 종종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HARVEST TIMES

2026년 2월 1일 제 17권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홍순아 박사
기독교 상담 심리대학원 원장

이러한 필요 앞에서 시작된 단체가 G.E.M(Good Enough Mind)입니다. G.E.M 은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사역 탈진과 관계 갈등, 정서적 소진을



MBC 오은영리포트 결혼지옥 후속상담진행 홍순아전문가

예방하고 선교사 가정의 전인적 회복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현직 상담심리학 교수와 심리학 박사들로 구성된 전문팀이 국내외 선교 현장을 방문하며 주제 강연, 힐링 캠프, 선교사 가족 상담, 다음세대 양육코칭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G.E.M 사역의 중요한 특징은 ‘찾아가는 멤버케어’입니다. 선교사가 상담을 받기 위해 애써 움직이기보다, 상담자가 현장으로 찾아가 그들의 언어와 삶의 맥락 안에서 마음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저희 팀이 선교지를 한 곳을 방문하여 는 선교사가정은 평균적으로 40-50 여 가정(Unit)을 만나 그들의 현재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후속상담으로 연계하여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교입니다.”

믿음의 다음세대인 선교사 자녀들의 마음은 더욱 조용히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의젓해 보이지만, 가족의 긴장과 책임을 일찍부터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선교의 지속 가능성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돌보는가’에 달려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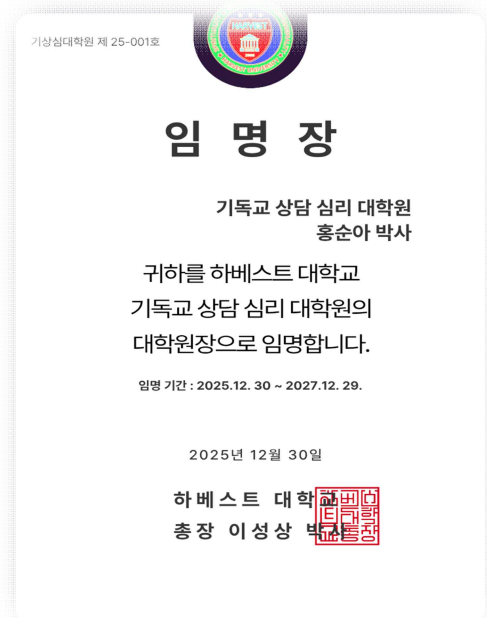
선교사 자녀 사역과 미술치료 치유 캠프에서는 작은 미술 도구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작은 변화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변화가 가정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Ⅲ. 치유자 디브리퍼 세우기 - 기독교상담심리학과와 비전

“마음을 돌보는 일은 선교를 방해하는 일이 아니라,
선교를 지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G.E.M 사역을 이어가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교사와 사역자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몇 차례의 캠프나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구조적인 교육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각 지역에 코디네이터를 세우고 교육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요르단, 베트남,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현지 코디네이터들이 긴급 구조 인력으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Harvest University의 기독교상담심리학과는 단순히 상담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신앙과 심리학을 통합하여 사람의 마음과 삶을 깊이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사역자와 상담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학과는 성경적 인간 이해를 기초로 정신역동, 이상심리, 성격심리, 발달심리, 가족체계이론, 트라우마 상담, 놀이미술치료 등 현대 심리학의 핵심 이론을 균형 있게 다루며, 선교·목회·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임상·현장 중심 교육을 지향합니다. 졸업 후에는 교회, 선교단체, 상담센터, 선교지 멤버케어 사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진로 구조를 갖추고자 합니다.

IV. 지금, 그리고 다시 부르심 앞에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 9:35)

선교지에서의 시간, G.E.M 사역, 그리고 교육 사역을 향한 준비의 과정은 모두 하나의 흐름 안에 있음을 이제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선교는 여전히 현장에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자리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오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ood Enough Mind 는 선교사님들이 위기를 지나 다시 전인적인 건강으로 사역해 갈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사역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 웹 홈페이지: <https://goodenoughmind.org>
- 카톡 아이디: gem2012



기독교상담심리대학원 석사.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상담심리학의 전문성 위에, 기독교 상담의 깊이를 더하다’

1. 학위과정

- 학위명: 기독교상담심리학 석사.박사 (M.A./ Ph.D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 총 이수학점: 36학점(M.A) / 48학점(Ph.D)
- 과정 운영: 비대면 & 대면수업(학점은행 운영)
- 과정 특징: 과목 집중과정 (최대 2년 이내 이수 가능)

2. 전공 교과과정 예시

- 상담의 기본기술/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 정신역동 상담이론/ 집단상담의 실제/ 심리검사
- 보웬의 가족치료/ 감수성훈련/ 미술치료 실제/ 놀이치료 이론과 실제/ 분석심리학(모래놀이치료)
- 임상 수퍼비전 / NLP 상담기법 / 기독교상담과 영적통합/ 논문 연구 I·II

3. 과정의 강점

- 현직 타대학교수 직강/ 7주 집중과정
- 이론-기법-체험-수퍼비전을 아우르는 고급 통합형 상담가 양성 구조
- 선교사·사역자·상담가를 위한 멤버케어 사역 특화 과정 및 현장투입
- 놀이·미술치료 자격과정 연계

4.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상담심리학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배워 상담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
- 선교사·사역자·목회자 및 멤버케어 사역에 관심 있는 분
- 미술·놀이·모래놀이 등 통합치유 상담에 관심 있는 분

5. 지원 안내

- 모집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
- 전형 방법: 서류 심사 (필요시 면접)
- 문의: 카톡 gem2012 or 하베스트 교학처

HARVEST UNIVERSITY 일본 동경 Campus



HARVEST UNIVERSITY 한국 태안 Campus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608-193

학장 박춘숙 선교사

하베스트 대학교 한국 태안캠퍼스는
선교사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잡은

고즈넉하고 조용한 **그때 그펜션**

꽃지 해수욕장, 밧개 해수욕장, 삼봉 해수욕장
등 설 거리 먹거리 장소가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바닷가에서 해루질
체험과 석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베스트 가족 (선교사님들과 가족) **1인 1일 2만원**

연락처 **010 2733 6287, 010 6560 6287**

주중에 오시면 더욱 조용하게 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엔 **안면도 들꽃축제와 국화축제, 대하 축제**가 진행됩니다.



HARVEST UNIVERSITY 한국 태안 캠퍼스 전경



HARVEST UNIVERSITY 한국 제주 Campus



HARVEST UNIVERSITY 인도 나갈랜드 Campus

학장 장병욱 선교사 석사, 박사 영어 과정



HARVEST UNIVERSITY 태국 치앙마이 Campus

도전!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하베스트 선교센터는 선교사들의 휴식과 재교육의 장소를 위해서 건축되고 있습니다.

1층 예배실, 도서관, 사무실, 세미나실

2층 게스트하우스 - 침대, 에어컨, 식기류 등 각 방을 위해 4백만 원이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층 치앙마이 전경이 보이는 연구실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치앙마이 센터를 오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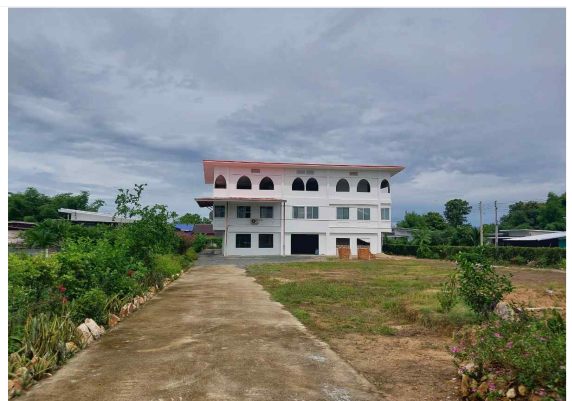
하베스트 가족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시고 오셔서 논문도 쓰시고 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용료 1인 1일 2만원 (조식포함)

치앙마이 센터 예약 (하베스트대학교 홈페이지)



선교센터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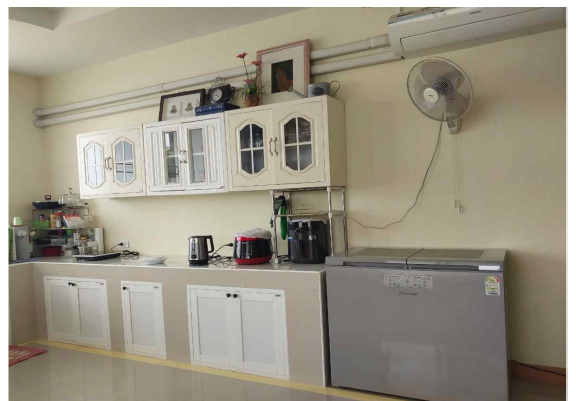
입구에서 본관 진입로



선교센터 정면



4만 여권의 도서가 있는 도서관



2층 게스트하우스

1월 사역 보고

구미시민교회 (조민상 목사) 중, 고등부 교사 포함 21명이 1월 13일(화) ~ 22일(목) 치앙마이 선교센터에서 비전트립을 가졌습니다.

하베스트 선교센터를 건축 하고 처음으로 맞은 단체팀이었는데 성실하게 품성 빌드업 훈련을 받은 중고등학생들이 선교센터 구석

구석에 기도와 찬양으로 단장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산상수훈 중 8복, 성령의 9가지 열매, 베드로의 믿음의 8단계를 품성이 라는 주제로 엮어 10일간 공부할 수 있는 <중고등부 품성 빌드업> 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베스트 센터에서 새벽 예배와 주일예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주어진 과제와 나눔을 통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미시민교회는 하베스트 센터를 위해 선교사 숙소 102호와 103호를 건축해 주셨고, 여전히 하베스트의 큰 후원자입니다.





2월에는 the 좋은 부부학교를 엽니다. 선교사 부부 7가정을 초청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아직 몇 개의 방에는 침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3층 창문과 에어컨을 설비해야 하지만, 기도하며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The행복한부부학교

매년 하베스트에서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일자: 2026년 2월 24일(월) ~ 26일(목)
강사: 박종혁 박사 부부(세종 하늘소리 성결교회)
참가비: 없음 (전액 하베스트에서 지원)



3월에는 **33회 세계선교 컨퍼런스 및 하베스트 대학교 학위 수여식**을 갖습니다, 엽니다. 33회 컨퍼런스는 하베스트 대학교 미래창조 대학원 원장이신 김형철교수의 주제강의와 실제로 선교지와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21일 프로젝트를 주요 주제로 다룹니다.



제33회 세계선교 컨퍼런스
하베스트 대학교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선교 컨퍼런스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사님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세계선교 컨퍼런스에 선교사님들을 초대합니다.



2026. 3. 16(월) ~ 19일(목)

태국 치앙마이 선교센터

CHIANGMAI GREEN LAKE RESORT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에서는 - 선교사 연장교육원, 하베스트 대학교, 치앙마이 선교센터, 선교사 복지(연금, 열방물) 등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재충전, 재교육, 재헌신하도록 섬기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하베스트를 섬기는 스태프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후원자님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하베스트 치앙마이 센터가 완공되어 많은 선교사님이 고향 집, 친정집 처럼 활용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특히 각 숙소에 에어컨과 침대 등이 구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각 방 300만원 x 숙소 12개**
4. **하베스트 선교사님들에게 연금을 풍성하게 지급하여 마음의 위안을 주는 기관으로** 꼭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500명에게 150만 원씩 매월 연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언제든 달려오십시오!
항상 문을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웃고, 쉬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내어 봅시다.



하베스트국제사역원 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

하베스트대학교 | 선교사 연장교육원 | 치앙마이 센터 | 하베스트 연금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Harvest International Ministry)은 한국, 태국, 미국 정부에 공식 등록된 단체입니다.

하베스트는 교육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추수하도록 **선교사 연장교육원**, **하베스트 대학교**, **치앙마이 선교센터**, **선교사 연금** 등의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선교사님들을 섬기자!”

이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영성과 품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 **하베스트 대학교** ◆ **선교사 연장교육원**
- ◆ **치앙마이 선교센터** ◆ **선교사 복지(연금, 열방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베스트는 늘 선교사님 곁에 있겠습니다.



한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베스트 대학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영어과정, 한국어 과정

harvestuniversity365@@gmail.com
www.harvest-mission.com



하베스트 대학교 학위과정 운영 규정

하베스트 대학교는 학점 은행제로 운영된다.

- (1) 학생은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다.
- (2) 학생은 대학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졸업할 수 있다.

행정비

- (1) 입학금은 5만 원으로 한다
- (2)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등 제반 서류 발급 비용은 2만 원으로 한다.
- (3) 선교지의 학생일 때 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이 정한다.

학비

- (1) 1학점당 10만 원 이상으로 한다.

학생 정원

- (1) 대학원장과 담당 교수의 결정으로 학생 1인 이상으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입학 서류 제출처

하베스트 대학교 교무처 harvestuniversity365@gmail.com

입학금

입학금 5만원을 접수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환불하지 않는다.
위조문서가 발견될 경우 등록 학생은 즉시 퇴학 조치된다.
아울러 학위 증명서가 무효 된다.

등록 절차

1. 1차 서류 접수, 2차 면접 및 심의, 3차 합격 통지서 발송 후 학비를 납부한다.
2. 학번을 부여받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을 신청한다.



VERIFICATION OF EXEMPTION

July 31, 2025

Mi Seon Eur
Harvest University
2471 Foxdale Avenue
La Habra, CA 90631

RE: Application for Verification of Exempt Status – Application Number 38262

INSTITUTION: Harvest University

BASIS FOR EXEMPTION: Religious - California Education Code (CEC) section 94874(e)

The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Bureau) has completed the review of your Institution's Application for Verification of Exempt Status pursuant to the California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Act of 2009 (Act) based on the application received on June 13, 2025.

The application demonstrates that Harvest University has met the qualifications for exemption from regulation under the Act, pursuant to California Education Code (CEC) section 94874(e): *"An institution owned, controlled, and operated and maintained by a religious organization lawfully operating as a nonprofit religious corporation..."*

Pursuant to CEC §94874.7, this verification of exemption shall remain valid until July 31, 2027, as long as the institution maintains full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exemption. Any of the following conditions will deem the institution ineligible for this exemption:

- the institution offers degrees or diplomas outside the scope of the beliefs and practices of the church, religious denomination, or religious organization;
- the institution offers degrees in any area of physical science;
- the institution is no longer a religious nonprofit organization;
- the institution is approved to participate in veterans' financial aid programs pursuant to Section 21.4253 of Title 38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any other factor exists that would render the institution ineligible for an exemption under the CEC section 94874(e).

Additionally, exempt institutions shall comply with CEC §94927.5 regarding the retention of student records and transcripts and their submission to the Bureau prior to closing.

If you require additional assistance on this matter, please contact Nicholas Robinson at (279) 895-6082.

Sincerely,

Nicholas Robinson

NICHOLAS ROBINSON
Licensing Analyst



가족성장 상담 대학원

가족성장 상담학석사 과정 (36학점)

Master of Arts in Family Counseling and Development

1. 전공필수과목

10과목 20학점, 아래 15과목, 각 2학점 중 10과목 선택 가능

가족치유 7 과정

내적 치유 (오광복/이은경 교수), 역기능가정 치유 (오광복 교수)

우울증과 분노 치유 (오광복 교수), 성격장애 및 인격장애 치유 (오광복 교수)

위기 디브리핑 (위기치유상담) (여진옥 교수)

사람 의존성 치유 (오광복 교수), 거짓된 사고 치유 및 중독 치유 (오광복 교수)



가족성장 5 과정

MBTI와 인간 이해 (이은경 교수), 중년기 변화와 성장 (이은경 교수)

인간관계훈련 (오광복 교수), 대화훈련 (이은경 교수)

향기나는 인격과 관계성장 (오광복 교수)

독서치유 3 과정

독서치유 상담 (오광복/이은경 교수)

독서상담의 실제 (어미선 교수), 독서상담실습 (어미선 교수)

2. 자격증 과정 (추가과정)

가족성장 상담사, 가족치유 상담사, 독서치유 상담사

인격 성장학 (향기나는 인격 & 관계 세우기)

-일시: 1/30금-3/6금

매주금8:30pm한국시간

-내용: 인격성장 3요소/결속(친밀감)의 능력

/관계능력을 위한 경계선 세우기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별&수용하기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길

-강의: 오광복 교수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상담대학원교수 /SEED 선교사)

-등록비: 청강 3만원,

학위 과정 수강 20만원(2학점)

-등록방법:

하나은행 380-910034-99405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송금시 수강자 이름과 '가족성장'을 적어
주세요.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 Zoom상담강좌

인격성장학 **(향기나는 인격&관계 세우기)**

-일시: 1월 30일-3월 6일 (매주금8:30pm 한국시간)

-내용:

인격성장 3요소/결속(친밀감)의 능력
/관계능력을 위한 경계선 세우기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별&수용하기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길

-강의: 오광복 교수

-등록마감: 1월 28일 (수)

-등록비: 연장교육 3만원,
학위 과정 20만원(2학점)

-등록방법: 하나은행 380-910034-99405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송금시 수강자 이름과
'가족성장'을 적어주세요.



신학대학원

신학사 (B.Th), 신학석사(Th.M), 신학박사(Th.D),
철학박사(Ph.D in Theology) 및 통합과정
2026년 1월 신입생 모집

1. 신학석사(Th.M) 졸업 요구학점

- (1) 신학사(B.A)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 (2) 문학석사(M.A)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 (3) 목회학석사(M.Div) 학위 소지 학생은 논문 8학점을 포함하여 20학점



2. 신학전공 철학박사(Ph.D) 과정 학생은 논문 10학점을 포함하여 4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전공을 선택하려면 필수과목 이외에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 (예: 성서학 전공, 조직신학 전공, 교회사 전공, 실천신학 전공 등).

4. 논문작성은 필수이며, 10학점으로 한다.

5. 문학석사(M.A)와 신학석사(Th.M) 과정 학생은 5과목(10학점) 이상의 교양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6. 입학요건은 목회학석사(M.Div)나 문학석사(M.A) 학위 소지자와 이에 따르는 정규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 석사 (M. A in InterCultural Arts)

문화예술학 박사(Ph.D in InterCultural Arts)

석사, 박사 통합 과정

1. 전공필수

교회음악학 (김부식 박사), 문화인류학 (김부식 박사)
문화예술 경영론 (김부식 박사), 캘리그래피 (김부식 박사)

힐링발성법 (정찬혜 박사), 아동문학 (김성구 박사)



2. 전공 선택

작곡법 (김부식 박사), 반주법 (김부식 박사)

기초성악 (김미현 박사), 합창지휘법 (김부식 박사)

시낭송 (남기선 교수), 수묵화 (김부식 박사)

성전꽃꽂이 (이현옥 교수),

시, 수필 강좌 (김부식 교수, 이진영 교수, 김성구 교수, 배인수 교수)

사진학 (정상진 교수), 한국장단(북,장구,뿔과리/사물놀이) (김부식 박사)

캘리그래피 (김부식 박사), 난타(타법과 설계) (김부식 박사)

3. 전공별 논문

- 1) 음악 전공 음악회
- 2) 미술 전공 전시회
- 3) 문학 전공 출판



선교대학원

선교학 문학석사(M.A in Missiology), 선교학박사(D. Miss),
철학박사(Ph.D in Missiology) 및 통합과정

1. 전공 필수

- * 선교학 개론 (김현진 박사),
- * 선교 신학 (김현진 박사)
- * 선교의 역사 (김현진 박사),
- * 선교 문화인류학 (김현진 박사)
- * 선교적교회론 (김현진 박사),
- * 성령과 선교 (김현진 박사)
- * 공동체와 선교 (김현진 박사),
- * 다문화 선교 (김현진 박사)



2. 전공 선택

- * 전도학 (이성상 박사),
- * 미디어와 선교 (조창식 박사)
- * 디지털 시대 AI와 선교 (안정위 박사)
- * 모라비안 형제단의 세계선교 (유정남 박사)
- * 선 의 경 교 (김규동 박사)

3. 논문 - 석사 과정 6학점, 박사 과정 10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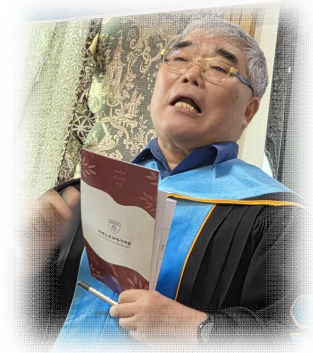
4. 교양 필수

박사 과정 학생은 3과목(6학점) 이상의 교양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



미디어 대학원

안정위 박사
미디어 대학원 교수
사역지원기술연구소



왜 사람들이 AI 인공지능기술에 환호하는가?

사람들이 AI 인공지능기술에 환호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발전 때문이 아니라, 삶과 일, 그리고 미래 가능성에 직접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배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편리함과 효율성의 극대화

자동화된 업무 처리: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 일정 관리 등을 AI가 대신 해 주니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상 생활의 도움: 음성비서(시리, 빅스비), AI 번역기(파파고, 구글 번역), 맞춤형 추천(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생활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내 시간을 벌어주는 기술”이라 느끼며 환호하게 된 것입니다.

2.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창의적 작업 지원: 그림, 음악, 글쓰기, 영상 제작까지 AI가 도와주며, 일반인도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마케팅 자동화, 고객 상담 챗봇, 제품 디자인 지원 등 기업

이 AI를 활용하면서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의료·교육 발전: 질병 조기 진단, 개인 맞춤형 학습 등 사람의 한계를 보완하는 AI의 가능성이 큰 환호를 불러옵니다.

3.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음

과거에는 전문가와 연구기관만 AI를 활용했지만, 지금은 ChatGPT, Gemini, Copilot 같은 서비스가 스마트폰이나 웹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학력, 나이,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AI와 대화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기술 민주화”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4. 성과와 결과의 차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AI를 활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물 수준과 속도가 크게 다릅니다.

예: 보고서 10장을 작성하는 데 하루가 걸리던 일을 AI는 몇 분 만에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이 격차를 경험하면서 “AI 없이는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과 동시에 “AI 덕분에 앞서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환호합니다.

5. 미래에 대한 희망

새로운 직업과 산업: AI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교육 전문가 등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도구: 기후 위기, 고령화, 질병 문제 등 인류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사람들을 열광하게 합니다.

6. 대중문화와 상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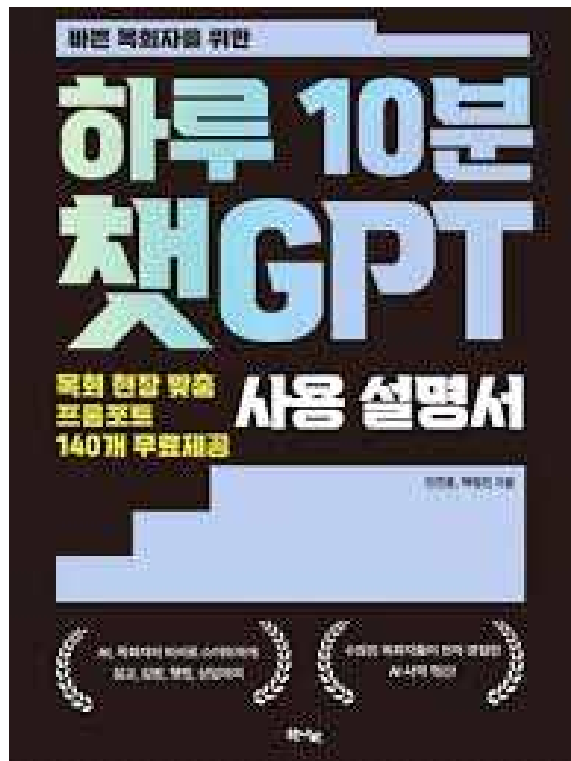
영화, 드라마, 뉴스 등에서 그려온 “똑똑한 로봇과 AI 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상상해 온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흥분과 호기심이 환



호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 정리하면, 사람들은 AI를 통해 편리함, 새로운 가능성, 접근성, 성과, 미래 희망, 상상력 실현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환호합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목회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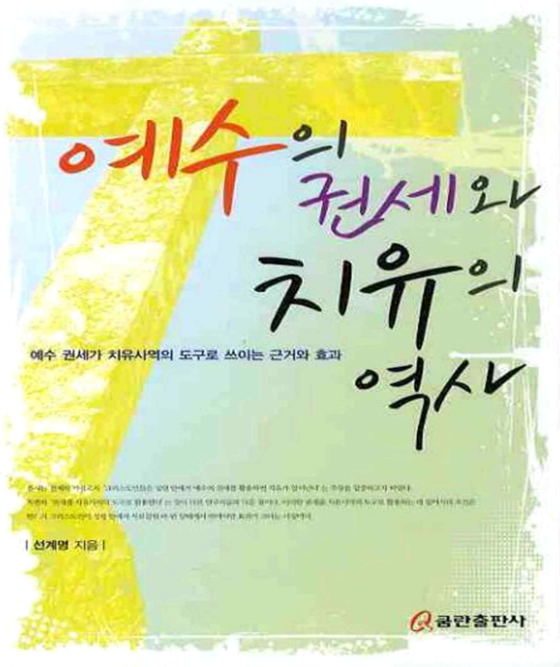
하베스트 대학교 목회대학원
선계명 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목회대학원 교수
선계명 박사는 광주 출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을 체험한 후 광신대학교와 개신대학교에서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었다.

광신대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박사를 받았고 현재는 광주 수완지구에서 지구촌교회를 건축하여 복지상담과 선교목회를 하고 있으며,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선교신학박사 졸업 논문 중에 있다.

여러 해 동안 광신대학교 신학 강사와 여러 대학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과 복지사역 여러 분야에서도 왕성하게 활동 하고 있다. 저서로는 금번이 처녀작이고 논문으로는 조선대교육대학원에서 쓴 '한국의 종교교육에 관한 고찰', 전남대행정대학원에서 쓴 '교회재정 지출의 합리화 방안', 광신대 일반대학원에서 쓴 '예수의 권세가 치유사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또한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쓰고 있는 논문으로 '지역 사회의 선교를 위한 복지상담사역의 기독교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코칭 리더십 대학원

문학석사(M.A in Coaching Leadership)

철학박사(Ph.D in Coaching Leadership) 및 석박 통합과정



[아들러 리더십 코칭]

역사가 증명한 리더의 무기:

'상식(Common Sense)'의 힘

하베스트 대학교 코칭리더십 대학원
장세호 박사

리더십 강의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공동감각'이 니 '공감'이니 하는 말들,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현실은 전쟁터인데 착한 마음만 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죠. 하지만 역사를 뒤집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머쥔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니라, 바로 '상식(Common Sense)'이었습니다.

아들러가 말한 공동감각이 단순히 듣기 좋은 도덕률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세상을 움직여온 가장 강력한 '현실적 힘'임을 역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상식이 만든 기적: 미국 독립전쟁

1776년, 토마스 페인은 팜플릿 한 권으로 식민지 아메리카를 뒤흔들었습니다. 책 제목은 《Common Sense(상식)》. 그는 복잡한 정치 이론 대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명쾌한 '공동감각'을 제시했습니다.

"작은 섬(영국)이 거대한 대륙(아메리카)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

"편지 한 통 보내고 답장받는 데 1년이 걸리는 거리에서 정치를 한다? 이건 비상식적인 낭비다."

그의 주장은 식민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고, 결국 거대 제국 영국을 무너뜨리고 독립을 쟁취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가장 상식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러가 말한 공동감각의 위력입니다.

2. 난세(亂世)가 부른 지혜: 동양의 제자백가

시선을 2,500년 전 동양으로 돌려봅시다. 춘추전국시대는 그야말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던 지옥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적 논리(이기심)'를 정의라 외치며 서로를 죽이고 빼앗았죠.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등장한 제자백가 사상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나만의 좁은 생각(사적 논리)을 버리고, 하늘의 보편적 질서(공동감각)를 따르라."

공자(유가):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기소불욕 물시어인)." 이것은 아들러의 '공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묵자(묵가): "나와 남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라(겸애)."

한비자(법가):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인치)을 버리고 공정한 원칙(법치)으로 다스려라."

특히 동양의 법가 사상은 리더의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공적인 원칙(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조직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 시스템과 규정을 중시하는 이
유도 여기에 닿아 있습니다.

3. 동양이 서양을 깨우다: 인본 주의의 역수입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서양의
것'이라고 믿는 민주주의와 인본주
의의 뿌리가 사실은 동양의 '공동
감각'에 있다는 점입니다.

17~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
가들은 중국의 공자 철학에 열광
했습니다. 신(God) 중심의 수직적

사고에 갇혀 있던 그들에게,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도덕적 본성(공감)을 가지고 있다"는
유교 사상은 충격적인 '상식의 발견'이었습니
다.

볼테르와 같은 지성인들이 동양의 인본주의를
받아들여 프랑스 혁명과 시민 혁명의 불씨를
지폈다는 사실은, 공동감각이라는 가치가 동서
양을 막론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보편적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4. 21세기 리더십, 다시 '기축시대'의 지혜로

지금 우리는 2,500년 전 기축시대(Axial Age)만큼이나 혼란스러운 변혁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빈부 격차, 환경 파괴 등 사적 논리가 폭주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했듯, 혼란을 잠재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힘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보편적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감(Empathy): 대니얼 골먼의 '감성 지능', 구글의 '내면 검색' 프로그램은 모두 동양의 명상과 공감 훈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Principle): 스티븐 코비의 '원칙 중심 리더십'은 아德勒의 공동감각을 현대 경영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결론: 상식이 이긴다

리더십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팀원이라면 이 결정에 납득할까?" "이 행동이 우리 조직과 사회에 떳떳한가?"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질문, 즉 '공동감각'을 놓지 않는 리더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고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이것은 도덕책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600만 년 인류 생존의 역사와 동서양 철학이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공식'입니다.

■ 코칭질문

1. 지금 우리 조직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혁파할 명분은 무엇입니까?
2. 오늘 내가 팀원에게 내린 지시나 피드백을 그대로 내가 상사에게 듣는다면, 나는 기꺼이 따를 수 있습니까? 내 마음(心)과 그들의 마음(心)은 통하고(如) 있습니까?

무슬림의 ‘움마’와 그리스도인의 ‘에클레시아’

김종일 박사
하베스트 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
아신 대학교 교수



붉은빛에 물들 것인가, 검은빛에 잠길 것인가?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며, 섬처럼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진리이다.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슬람권에서 무슬림들의 호흡과 삶을 공유하며 살아온 나에게, 동양의 오랜 지혜인 ‘근주자적(近朱者赤) 근묵자흑(近墨者黑)’이라는 한자 성어는 늘 새로운 통찰과 묵직한 질문을 던져 주었다. 붉은 먹을 가까이하면 붉어지고, 검은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진다는 이 간결한 비유는, 인간 실존의 핵심, 즉 ‘환경과 교제가 개인의 정체성을 빚어낸다’라는 원리를 담고 있다.

이 지혜는 놀랍게도 내가 만난 무슬림 형제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결코 건널 수 없는 심연과 같은 차이점을 마주하게 된다.

함께 물들어가는 삶: 움마(Ummah)와 에클레시아(Ekklesia)의 공통 분모

이슬람 신앙의 기둥 중 하나는 ‘움마’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이다. 움마는 단순히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넘어,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거대한 유기체적 운명 공동체를 지향한다. 라흐만은 움마가 단순히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를 넘어 알라 앞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임을 강조

한다.

이슬람에서 개인의 신앙은 결코 홀로 완성될 수 없다. 하루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같은 방향(메카의 카바 신전)을 향해 기도하고, 라마단 기간에 함께 굶주림을 체험하며, 금요일에는 모스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행위는 개인을 ‘움마’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적 신앙은 ‘근주자적, 근묵자흑’의 원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Hadith)에는 이와 관련된 유명한 비유가 등장한다. “훌륭한 친구와 나쁜 친구의 비유는 사향(麝香)을 파는 사람과 대장장이의 비유와 같다. 사향을 파는 사람은 너에게 사향을 주거나, 너는 그에게서 사향을 사거나, 최소한 그에게서 좋은 향기를 맡게 된다. 그러나 대장장이는 너의 옷을 태우거나, 너는 그에게서 고약한 냄새를 맡게 될 것이다.”

이 하디스는 이슬람 세계에서 교제의 중요성을 논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이다. 이 비유는 무슬림들에게 경건한 자들과의 교제(ṣuḥbah ṣāliḥah)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설적으로 가르친다. 그들은 경건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신앙적 ‘향기’에 물들기를 열망하고, 세속적이고 불경한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영혼이 ‘그을음’에 더러워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꾸란 역시 “자신들의 주님께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과 함께 인내하라”(꾸란 18:28)라고 명하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이 모습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너무 익숙한 풍경이다. 성경 또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언 13:20)라고 경고하며,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고린도전서 15:33)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초대교회 공동체, 즉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무리로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속의 가치관에 잠식되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영적 방파제였다. 본회퍼는 기독교 공동체(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세상의 검은 물결에 맞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붉은 정체성을 지켜내고자



AI 이미지(김종일 제공)

분투한다. 이처럼 이슬람의 움마와 기독교의 에클레시아는 모두 ‘근주자적, 근묵자흑’의 영적 원리가 작동하는 거대한 장(場)이라는 점에서 놀라운 유사점을 공유한다.

붉은빛의 근원: 율법(Sharia)인가, 그리스도의 보혈(Blood of Christ)인가?

그러나, 이 외형적 유사성의 지반 아래에는, 두 신앙의 본질을 가르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를 붉게 물들이는 그 ‘주(朱)’, 즉 거룩함과 의로움의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다. 이슬람에서 ‘주(朱)’의 원천은 신의 법, 즉 ‘샤리아’와 예언자 무함마드의 삶의 방식인 ‘순나’이다. 무슬림에게 있어 의롭게 되는 길은 이 신적인 규범과 모

델을 최대한 정확하고 철저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샤리아가 단순한 법규 목록이 아니라, 신의 뜻을 찾아가려는 인간의 역동적인 노력의 과정임을 설명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의 해석과 순종의 노력이 있다.

움마 공동체의 역할은 이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지치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감시하며, 함께 규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즉, 공동체와 개인의 피나는 노력과 순종을 통해 스스로 ‘불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알라의 기준에 도달하려는 장엄하고도 고된 투쟁, ‘지하드 알 나프스(jihād al-nafs, 내면과의 투쟁)’의 길이다. 나는 무슬림들의 경건을 향한 열망과 엄격한 자기 절제를 존경한다. 그들의 삶은 ‘근주자적’이 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이다.

반면, 복음주의적 개혁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주(朱)’는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다. 기독교의 ‘근주자적’은 단순히 붉은색에 가까이 가는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검은색이었던 내가 붉은 피에 완전히 잠기고, 그 피로 나의 존재 자체가 뒤덮여 ‘새로운 색’을 부여 받는 사건이다.

의로움(Righteousness)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속성(attribute)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새로운 신분(identity)이다. 성경은 이 충격적인 진리를 이렇게 선언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존 스토틀는 이 구절을 ‘대속의 교환(the great exchange)’이라 칭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맞바뀌는 복음의 핵심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슬람의 ‘근주자적’이 행위(doing)를 통해 존재(being)를 바꾸려는 시도라면, 기독교의 ‘근주자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new being)가 됨으로써 새로운 행위(new doing)가 흘러나오는 원리이다. 우리의 ‘붉음’은 우리

의 선행이나 경건 훈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가진 능력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 공동체는 ‘스스로 붙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붙게 된 죄인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서로의 붙은 정도를 비교하며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붙게 물들이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근원을 함께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들이다.

은혜를 잃은 에클레시아,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비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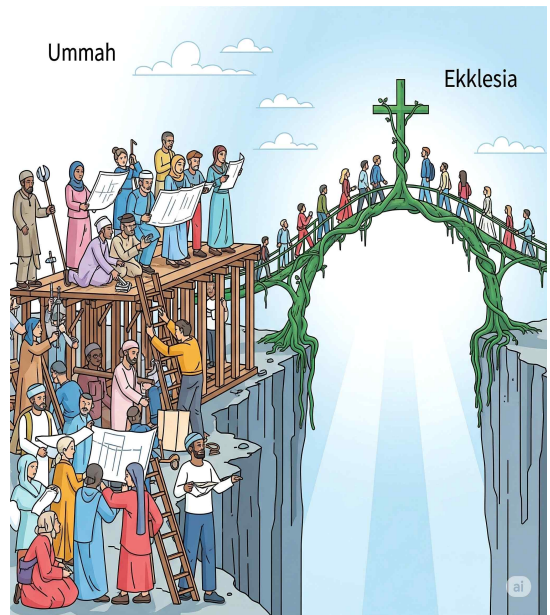
여기서 복음주의 개혁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이슬람의 움마보다 더 지독한 율법주의적 ‘근목자혹’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붙게’ 되었음을 축하하기보다, 그의 삶에서 여전히 보이는 ‘검은 얼룩들’(과거의 습관, 연약함, 실수)을 지적하고, 정죄하며 그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직분, 헌금 액수, 봉사 시간, 경건의 모양으로 줄 세우며 은연중에 ‘더 붙은 성도’와 ‘덜 붙은 성도’를 나누는 순간, 우리의 에클레시아는 이미 복음의 능력을 잃고 ‘샤리아’를 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움마로 전락하고 만다. 팀 켈러도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아들을 비판했던 ‘집 안에 있던 탕자’, 즉, 만아들의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움을 지적하며, 복음은 두 아들 모두에게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외침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경고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라디아서 3:1)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모두 본질상 ‘묵(墨)’, 즉,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붙음은 자가발전의 결과가 아닌, 오직 은혜의 수혈 덕분이다. 그렇다면, 참된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의 ‘검음’을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얼룩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덮어주고 씻어주는 ‘영적 세탁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붙어지라’라고 요구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를 붙게 만드신 그리스도께 함께 나아가자고 손 내미는 동료 순례자일 뿐이다. 우리의 교제는 행위의 완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의 연약함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이 차이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생명을 주는 복음의 샘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칼이 될 수 있다.



AI 이미지(김종일 제공)

누구에게, 무엇에 물들 것인가?

‘근주자적, 근묵자흑’. 이 오래된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빛깔에 물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며 어떤 향기와 어떤 그을음을 내뿜고 있는가? 이슬람의 움마는 이 질문 앞에서 율법과 공동체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내려 분투한다. 그들의 경건한 노력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질문을 넘어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붉은색에 가까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단번에 붉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문제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한 방울씩 붉은 잉크를 떨어뜨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보혈이라는 붉은 바다에 온전히 잠기는 삶이다. 이 은혜를 체험한 공동체, 이 감격 위에 세워진 ‘에클레시아’만이 세상을 물들이는 진정한 ‘주(朱)’의 빛을 발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에 물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여 붉은색을 요구하는 곳인가, 아니면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는 곳인가?

(밖에서 본 이슬람 시리즈 제1권)

밖에서 본 이슬람, 무슬림 이해하기

김종일 지음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본격 이슬람
탐구 시리즈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을 자극하면서 우리의 진리를 전하려는 노력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RABISA
BOOKS**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니라! (레22)



정규동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목회대학원

21장과 22장의 주제는 한 가지인데, ‘흠 없는’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제사장’에게 흠이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흠 없는 제물’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곳에 다 ‘~한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22장에 반복되는 말은 ‘나는 여호와니라’가 7회, ‘열납’이 7회, ‘내 성호를 욕되게 말라’가 3회 사용되었습니다. 제물이 부적합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드리면 열납되도록 드러야지,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제물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드리는 것은 마음

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받지 않기도 하고, 불쾌하게 여기기도 하십니다. 결함이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일을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말라기에 이런 행태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보

성경 읽기 참고서 신약 1

장(章)으로 성경 꿰뚫어 보기

정 규 동 목사



국제문학사

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말1:8).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하고 말했습니다(말1:13). 귀찮게 여겨서 아무렇게나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랑 결핍’과 ‘사랑 실종’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먼저 사랑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문제이기도 하고 해결의 방책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다른 것도 다 회복됩니다. 레위기에서도 ‘사랑’이 바탕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은혜를 언급하셨습니다(33).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2)

성호를 욕되지 않게 하려면 드리는 사람 ‘제사장’과 드려지는 ‘성물’을 구별해야 합니다(2). 성물을 먹는 사람도 구별해야 합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

는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받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후손 중에 나병 환자도 있을 것이요, 유출병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물에 관한 규정

22장 앞부분에는 성물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못할 자는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입니다(4). 부정한 벌레나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한 자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5). 그리고 외국인,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10). 외국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딸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12).

먹을 수 있는 자는 제사장의 딸이 외국인과 결혼했지만, 과부가 되었던지 이혼을 당하여 자식 없이 친정에 와 있으면 그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13).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이라도 긴 시간 먹지 못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을 물로 씻은 뒤, 혹은 해가지고 난 뒤에 성물을 먹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7). 부정한 것에 접촉했다고 할지라도 음식을 먹어야 사니까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부지중에 성물을 먹은 자도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탈출구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 성물에 1/5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14)했습니다.



제물에 대한 규정

하나님은 제물로 드릴 짐승에게 있는 흠을 7가지로 규정하셨습니다. 흠 있는 짐승은 집에 두면 사료나 축넬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슬쩍 ‘끼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제사도 드리고 쓸모없는 짐승도 처리하는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례가 됩니다.

이 중에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불알 상한 것’은 부적격 사유가 되었습니다(21:20,24). 짐승의 경우는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거세를 했다고 해도 이런 짐승을 제물로 못한다고 하셨습니다(24).

짐승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사람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이런 사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바로 죽이기 때문에 더이상 새끼를 낳는 일에 사용될 수 없었는데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물을 구별하는 규정 중에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서원 제물로는 안 되지만 낙헌 제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뒤에 딸린 객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기관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기관차가 고쳐져서 움직이면 다른 것은 다 따라갑니다. 사랑이 탈이 나면 그것이 고쳐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멈추어선 것은 사랑이 고장 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열방 선교

열방몰은 선교사 후원 및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연결한다는 비전하에 카카오톡 채널과 구글 플레이 앱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제공하며, 선교 기금을 마련하는 등 선교사 후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후원, 세계 복음화, 선교 기금 마련.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연결하는 선교적 쇼핑몰.

열방몰은 '쇼핑 선교사'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복음화와 선교사 후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공식 웹사이트: 5012mission.com

열방몰의 주요 특징 및 서비스

선교 후원 시스템

물품 구매를 통해 선교지 및 선교사를 후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선교 사역에 사용합니다.

다양한 카테고리

교회 용품을 비롯해 식품, 생활가전, 뷰티, 패션 등 일반 쇼핑몰과 유사한 폭넓은 상품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네트워크

성도들의 사업장을 소개하거나 교회 간 바자회 물품을 공유하는 등 크리스천 소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합니다.

공급사 모집

열방몰의 상품판매가
곧 선교입니다.

입점사 모집

소상공인 여러분!
선교 후원과 함께 성장하세요.

귀하의 매장을 성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하베스트 선교사님께

10년간 연금 보내드리기 프로젝트

한국교회의 빠른 성장으로 많은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며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세대가 선교에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서는 파송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후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은 선교사 연금시스템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 연금 가입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산하에서 운영하는 "목회자·선교사 연금시스템"은 단순한 노후 준비를 넘어,

사명자들의 끝까지 흔들림 없는 사역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연금 가입안내

교회는 목회자와 선교사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청빙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은퇴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헌신해 온 분들이 사역을 마친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돕는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이자 책임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헌신하는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연금 가입 방법

하베스트 연금회원 가입과 동시에
은퇴금 가입자가 됩니다.

가입 후에는 입금 시

'이름 + 은퇴금' (예: 이주만은퇴금)

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불입 내역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및 열방물
둘러 보기

● 은퇴연금 가입상담

주만장로 : 010-3418-9169

 지금 바로 하베스트 연금 시스템을 통해 선교사님의 사역을 끝까지 동역해 주세요!



AROMATHERAPY

향기로
말하는

여자

최영진 지음

향기가 좋은 마음을
시도하는 아로마테라피
그녀가 아로마테라피를
만난 것은 향물이었다



에스엔
Cafe & Book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와 특권에 합당한 순종



박일승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교수

이란의 경우, 국가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사격으로 사망자가 8만 명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국가가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마지막 죽은 인질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대비되어 들려옵니다. 그 큰 차이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죽음을 사랑하는 국가인지 생명을 사랑하는 국가인지의 차이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차이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 저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단어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heavenly Father, your Father in heaven)'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서만 무려 16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 5:9절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아버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마 7:21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까지 더하면, 산상수훈 전체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총 17번에 이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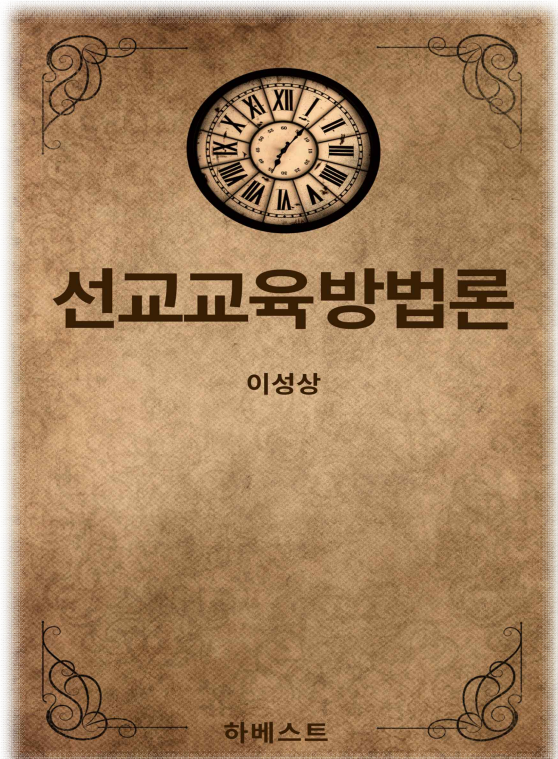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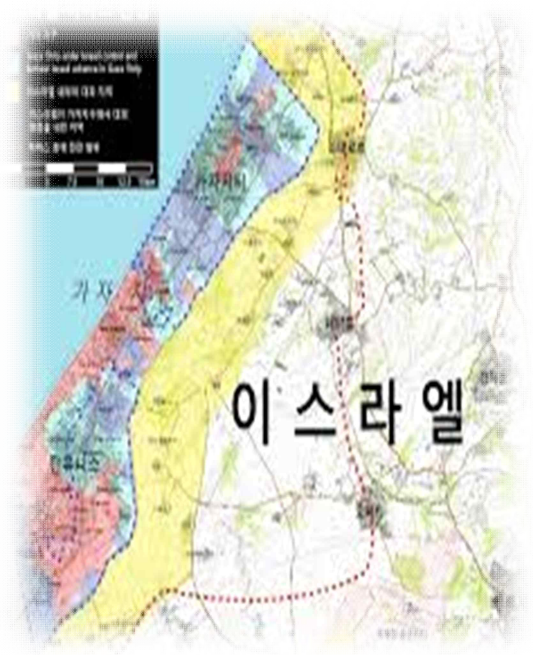
이는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너희 아버지'가 곧 '내 아버지'임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는 삼하 7: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하신 다윗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제자들이 '아들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선언입니다.

통 라이트에 의하면 예수님은 본질적 아들이며, 제자들은 은혜로 참여하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백성만이 아닌, 아버지를 닮는 자들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재정의해주셨습니다.

이는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7)는 하나님 역사의 놀라운 완성의 선언으로 연결됩니다. 어메이징!

오늘 하루 이 놀라운 특권이자 우리의 행할 수준을 제시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딸)'이란 정체성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형제 자매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II 6회 수업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관통하세요.

📌 '시온의 대로 이스라엘 아카데미 3기 교육 안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기초하여, 언약과 하나님 나라 완성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 『시온의 대로, 시온의 영광』을 주교재로 하나님의 역사를 큰 그림으로 보며 체계적인 저자 직강과 조별 토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 교육 과정>

- 1주: 전체 개관
- 2주: 1과 언약과 이스라엘
- 3주: 2과 메시아 언약의 성취: 유대인의 왕 예슈아
- 4주: 3과 초대교회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 5주: 4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언의 성취
- 6주: 5과 언약의 완성: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

<📌 교육 일정>

- * 일시: 2월 7일~3월 14일 매주 토요일 10:30~12:30 (총6회)
- * 장소: 시온의 대로 교육원(3호선, 분당선 수서역 지하 연결)
(서울 강남구 광명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736호)
- * 인원: 선착순 12명
- * 등록비: 10만원(교재비 포함) 목회자·선교사·학생 50% 할인 / 재수강 3만원
- * 계좌: SC제일은행 378-20-225376 마동숙
- ☎ 문의: 010-2500-4414 마동숙 (* 입금 후 문자주시면 연락드립니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저자: 김진



책 리뷰: 어미선(01. 2026)

어미선 교수

하베스트 대학교 가정성장 대학원

미국 하베스트 대학교 이사

정신과 전문의이자 신학을 공부한 김진 박사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신앙과 심리학을 연결해 주는 책이다. 저자는 복음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 성품이 형성되는 과정, 성화, 방어기제, 문제를 직면하는 태도, 그리고 영적 성장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이 책은 특히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모든 사역자, 즉 목회자, 상담가, 멤버케어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필자는 선교지에서 사역하며 수많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과 ‘신앙과 심리 사이의 간극’을 경험해 왔는데, 이 책을 통해 그 문제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1. 인간 이해의 핵심: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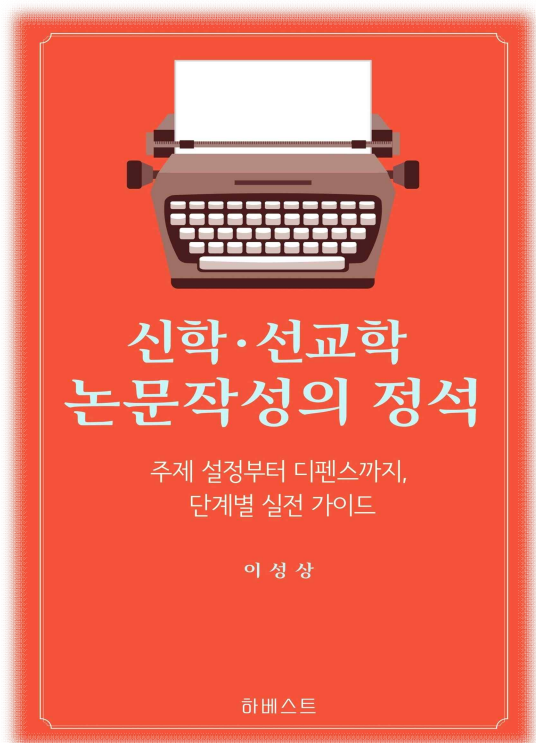
저자는 인간의 의식을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이라는 두 구조로 설명한다. 열린 의식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이고, 닫힌 의식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나이다. 사람은 과거의 경험과 상처, 무의식적인 기억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지만, 정작 그 이유는 스스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신앙적인 언어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여기는 부분들도 실제로는 닫힌 의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특정 사람이나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반복되는 죄책감, 이유 없는 두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은 단순한 영적 미성숙이 아니라 의식되지 않은 마음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선교지에서 멤버케어를 하다 보면, 사역자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한 채 ‘영적인 표현’으로 문제를 피해 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저자가 말하듯, 인간은 모두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과거를 통찰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는 상담과 영성을 연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2. 자아 형성과 영적 여정

저자는 어린 시절의 환경, 특히 부모의 태도와 가정 분위기가 자아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아이에게는 아직 마음을 걸러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불안, 분노, 두려움, 사랑의 부족이 그대로 아이의 닫힌 의식 속에 들어간다. 이 부분은 선교사 멤버케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사역자들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은 채 선교 현장에 들어가고, 그 상처는 관계 갈등, 권위 문제, 완벽주의, 정서적 탈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저자의 말처럼 “사람의 불행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온다.” 결국 치유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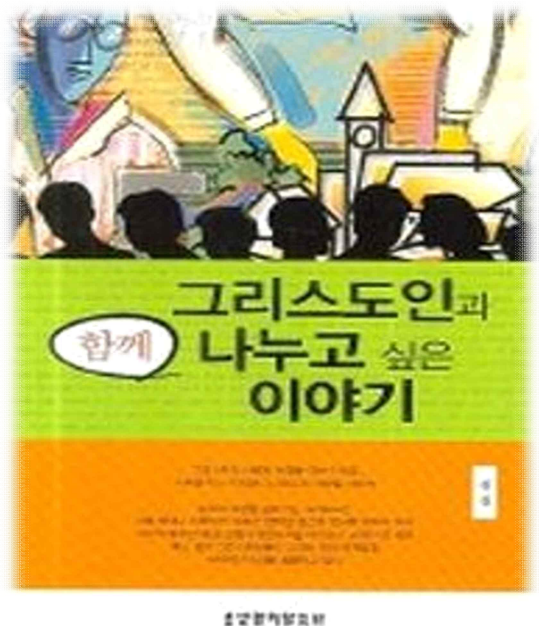
3. 예수님의 인간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성화 과정

이 책은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보여주신 깊은 인간 이해를 강조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정확히 보셨고, 간음한 여인, 세리, 베드로 등 각 사람의 상황과 마음에 맞게 다가가셨다. 진리는 같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달랐다.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원리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신학적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이해하신 후 그 사람에게 맞게 진리를 전하셨다. 복음은 사람을 알고 나서야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저자는 중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겉으로만 신앙적인 모습에 머무르거나, 자신과 타인을 쉽게 판단한다. 멤버케어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되는 ‘완벽한 선교사 콤플렉스’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 책은 인간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기에,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4. 방어기제와 그리스도인의 마음 문제

저자는 투사, 억압, 합리화, 전위와 같은 방어기제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특히 인상 깊은 점은, 방어기제를 단순한 심리 용어로 다루지 않고 영적 자기기만과 연결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배 분위기가 집중되지 않는 것을 보며 “요즘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내적 불안이 투사된 경우일 수 있다. 선교지에서도 문화적 스트레스가 동료나 현지인에게 투사되는 모습을 자주



본다. 저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습관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상담뿐 아니라 영성 훈련에서도 핵심적인 태도이다.

5.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영역과 신앙의 균형

저자는 성경만능주의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 인간 심리나 사회 현상을 모두 설명하는 백과사전은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원리 안에서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며 배워야 한다. 이 점은 선교지에서 상담과 멤버케어를 하며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다. 정신질환을 단순히 귀신들림으로 해석하거나, 트라우마를 영적인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저자의 균형 잡힌 시각은 신학과 심리학을 함께 사용하는 사역자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6. 지향적 자기로의 성장과 사랑의 회복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비지향적 자기와 지향적 자기를 대비한다. 비지향적 자기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수동적인 자아이고, 지향적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자아이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영향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새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심리학적으로는 반복적인 성찰과 정리가 필요하고, 신앙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결국 참된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7. 사역자로서의 통찰

이 책은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는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통찰을 주었다.

1. 영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는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은 몸과 마음

과 영이 하나인 존재다.

2. 사역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깊이 이해할 수 없다.
3. 판단보다 이해하려는 태도가 선교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4. 상담과 멤버케어, 목회는 결국 사람을 알아가는 사랑의 과정이다.
5. 모든 사람은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성령 없이는 참된 변화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심리학적 통찰과 복음적 인간관을 균형 있게 담아낸 귀한 책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복음 안에서 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든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영적 여정을 차분하게 조명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의 인격이 빚어져 가는 길을 안내한다. 필자는 앞으로의 상담 사역과 멤버케어 현장에서 이 책의 통찰을 계속 적용해가고자 한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실크로드를 따라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년의 교회 역사

최하영(Ph.D, GMS/CCC,

hydavidchoi@gmail.com)

하베스트 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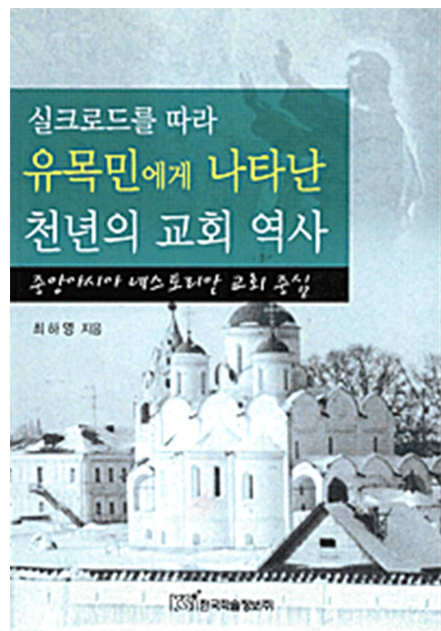


최하영 교수가 <실크로드를 따라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년의 교회 역사>라는 선교서적을 발간했다.

최선교사는 이 책에서 아시아는 문명과 종교의 후발 지역이 아니라 일찍이 문명과 종교의 발원과 부흥이 있었던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종교적 열심과 자긍심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가 로마, 유럽, 미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를 외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서구적 세계관을 벗어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동시에 복음의 혜택을 주셨으며 오히려 아시아에 더 큰 복음의 축복을 주셨음을 주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네스토리안파의 태동과 초기 중앙아시아 기독교 역사’, ‘투르크스탄제국과 네스토리안파’, ‘위구르제국과 네스토리안파’, ‘몽골제국과 네스토리안파’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HARVEST JOURNAL

하베스트 학술지 편집 위원

부편집장 김규동 박사

편집위원 조동욱 박사

김재수 박사

최하영 박사

김해규 박사

유정남 박사

김종일 박사

손승호 박사



사단법인 하베스트 국제사역원

HARVEST TIMES

2025년 2월 1일 제17호

발행인 이성상 박사

편집인 나주아 박사

